

## 국어[한문 포함]

문 1. 밑줄 친 부분이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것은?

- ① 약속을 번번히 어긴다.  
 ② 그는 의젓이 행동한다.  
 ③ 꼼꼼히 생각에 잠기었다.  
 ④ 딱이 갈 만한 곳도 없다.

문 2.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집밖에 V 나가서 V 놀지 V 않을래?  
 ② 길동이는 V 잘난체 V 하는 V 것도 V 밋지가 V 않아.  
 ③ 음식은 V 각자 V 먹을만큼만 V 접시에 V 담아 V 가세요.  
 ④ 자료를 V 검토한바 V 몇 V 가지 V 미비한 V 사항이 V 발견되었다.

문 3.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설악 Seolak  
 ② 속리산 Songnisan  
 ③ 양주시 Yangju-si  
 ④ 독립문 Dongnimmun

문 4. 밑줄 친 부분이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것은?

- ① 강좌를 알리는 플랭카드가 거리에 걸려 있다.  
 ② 달콤한 초콜렛을 먹으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③ 지도자에게는 강한 리더쉽이 필요하다.  
 ④ 다양한 기능의 로봇이 등장하고 있다.

문 5. 표준 발음이 아닌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 ① 끝을[끄출], 피웁에[피으페], 닭 앞에[달가페]  
 ② 헛웃음[허두슴], 휘발유[휘발뉴], 밭 아래[바다래]  
 ③ 넓다[넙따], 넓죽하다[넙죽카다], 넓둥글다[넙뚱글다]  
 ④ 결단력[결판녁], 상견례[상견네], 서울역[서울녁]

문 6. 다음은 훈민정음 창제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부적절한 것은?

초성, 곧 (㉠)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음을 알 수 있으니, 이는 곧 (㉡)의 원리이다. 아음인 ㅍ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설음인 ㄴ은 혀가 윗잇몸과 닿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이 그것이다. 이처럼 모양을 본떠서 만든 초성은 ㄱ, ㄴ, ㄷ, ㄱ, ㅅ, ㅇ의 다섯 글자이다. 이 다섯을 기본자로 삼고 기본자에 획을 더해 가는 방식을 취하였으니, 이는 곧 (㉢)의 원리이다. ㄱ에 획을 더하여 ㅋ을, ㄴ에 획을 더하여 ㄷ을, ㄷ에 획을 더하여 ㅌ을 만든 것이 그것이다. 한편, ‘ㅇ’, ‘ㅅ’, ‘ㄹ’은 (㉣)라고 한다.

- ① ㉠: 자음  
 ② ㉡: 상형  
 ③ ㉢: 병서  
 ④ ㉣: 이체자

문 7. 다음 국어사전 정보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단어의 사용이 부적절한 것은?

**받다** ㉠ 【…에서/에게서 …을】 ((‘…에서/에게서’ 대신에 ‘…으로부터’가 쓰이기도 한다)) ①다른 사람이 주거나 보내오는 물건 따위를 가지다. ②다른 사람이 바치거나 내는 돈이나 물건을 책임 아래 맡아 두다. ③다른 사람이나 대상이 가하는 행동, 심리적인 작용 따위를 당하거나 입다. ④점수나 학위 따위를 따다. ⑤여러 사람에게 팔거나 대어 주기 위해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품을 사다.  
**받치다** ㉡ ① 【…이】 ①먹은 것이 잘 소화되지 않고 위로 치밀다. ②앉거나 누운 자리가 바닥이 탄탄하게 배기다.  
 ② 【…에】 화 따위의 심리적 작용이 강하게 일어나다.  
**받히다** ㉢ 【…을 …에/에게】 ‘받다’의 사동사.

- ① 그는 설움에 받쳐 울음을 터뜨렸다.  
 ② 맨바닥에서 잠을 자려니 등이 받쳐서 잠이 오지 않는다.  
 ③ 아침에 먹은 것이 자꾸 받쳐서 아무래도 점심은 굶어야겠다.  
 ④ 고추가 워낙 값이 없어서 백 근을 시장 상인에게 받쳐도 변변한 옷 한 벌 사기가 힘들다.

문 8. 밑줄 친 문장의 상황에 부합하는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대로 때려 었었다. 닭은 폭 었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 하고 그대로 죽어 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홑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 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뭐 이 자식아! 누 집 닭인데?”  
 하고 복장을 때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도 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맷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굴에 영 하고 울음을 놓았다. 그러다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그럼, 너, 이담부터 안 그럴 테냐?”  
 하고 물을 때에야 비로소 살 길을 찾는 듯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요담부터 또 그래 봐라. 내 자꾸 못살게 굴 테니.”  
 “그래 그래, 인젠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이를 테니.”  
 그리고 뒤통에 떠다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펑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 버렸다.  
 — 김유정, ‘동백꽃’ 중에서 —

- 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군.  
 ②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야.  
 ③ 이건 울며 겨자 먹는 꼴이지 뭐야.  
 ④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군.



문 16. 논지 전개상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통문화는 근대화의 과정에서 해체되는 것인가, 아니면 급격한 사회 변동의 과정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 전통문화의 연속성과 재창조는 왜 필요하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외래문화의 토착화(土着化), 한국화(韓國化)는 사회 변동과 문화 변화의 과정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상과 같은 의문들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입장에 따라 상당한 견해 차이도 드러내고 있다. 전통의 유지와 변화에 대한 견해 차이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단순히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차이로 이해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한국 사회의 근대화는 이미 한 세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광범하고 심대(深大)한 사회 구조적 변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전통문화의 변질을 어느 정도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가 하면, 사회 변동의 강력한 추진 세력 또한 문화적 전통의 확립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한국 사회에서 전통문화의 변화에 관한 논의는 단순히 외래문화이나 전통문화이나의 양자택일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도 명백하다. 근대화는 전통문화의 연속성과 변화를 다 같이 필요로 하며, 외래문화의 수용과 그 토착화 등을 다 같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통을 계승하고 외래문화를 수용할 때에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이냐 하는 문제도 단순히 문화의 보편성(普遍性)과 특수성(特殊性)이라고 하는 기준에서만 다룰 수 없다. 근대화라고 하는 사회 구조적 변동이 문화 변화를 결정지을 것이기 때문에, 전통문화의 변화 문제를 ( )에서 다루어 보는 분석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한다.

- ① 보수주의의 시각
- ② 진보주의의 시각
- ③ 사회 변동의 시각
- ④ 보편성과 특수성의 시각

문 17. 밑줄 친 부분이 의미상 문맥에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 ① 새우젓은 곰삭아야 제 맛이 난다.
- ② 주인이 놀라는 척하며 능갈치는 소리가 들려 왔다.
- ③ 돈이 없어서 막걸리도 푼푼이 못 마신다.
- ④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으니 꾸중을 들어도 하릴없는 일이다.

문 18. 다음은 한자 성어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한자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 進退維( )
- 送( )迎新
- 目不( )見
- ( )故知新

- ① 容, 旭, 引, 溫
- ② 谷, 舊, 忍, 溫
- ③ 谷, 荒, 仁, 顯
- ④ 俗, 舊, 仁, 廩

문 19.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公無渡河                      그대 물을 건너지 마요.  
公竟渡河                      그대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  
墮河而死                      물에 빠져 죽으시니  
當奈公何                      이제 그대 어찌하리.  
— 백수 광부의 아내, ‘공무도하가’ —

(나) 어저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로드나.  
이시라 흐더면 가라마는 제 구터여  
보니고 그리는 情(정)은 나도 몰라 흐노라.  
— 황진이의 시조 —

(다) 梨花雨(이화우) 훗썩릴 제 울며 잡고 離別(이별)혼 님  
秋風落葉(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는가  
千里(천 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흐노매.  
— 계랑의 시조 —

- ① (가)와 (나)는 모두 민요조의 율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모두 참요(讖謠)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모두 향토적 소재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 (나), (다)의 화자는 모두 이별로 인한 쓰라림을 느끼고 있다.

문 20. 다음 문장이 들어갈 곳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것은 내가 그리워해 온 선대인은 어머니나 아버지, 그리고 동기간들이 아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 ㉠ ) 시골을 다녀오되 성묘가 목적이기는 근년으로 드문 일이었다. 더욱이 양력 정초에 몸소 그런 예모(禮貌)를 찾고 스스로 치름은 낳고 첫 겪음이기도 했다. 물론 귀성 열차를 끊어 앓고부터 “송헌……. 뉘라 양력슬두 슬이라 이른다더냐, 상것들이나 왜놈 세력(歲曆)을 아는 뻔여…….” 세모가 되면 한두 군데서 들어오던 세찬을 놓고 으레껏 꾸중이시던 할아버지 말씀이 자주 되살아나 마음 한켠이 걸리지 않은 바도 아니었지만, 시절이 이러매 신정 연휴를 빌미할 수밖에 없음을 달리 어찌랴 하며 건넌 거였다. 그러나 할아버지한테 결례(불효)를 저지르고 있다는 느낌을 나 자신에게까지 속일 수는 없었다. ( ㉡ )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가문을 지킨 모든 선인 조상들의 심상은 오로지 단 한 분, 할아버지 그분의 인상밖에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 ㉢ ) 고색창연한 이조인(李朝人)이었던 할아버지, 오직 그분 한 분만이 진실로 육친이요 조상의 얼이란 느낌을 지워 버릴 수 없는 거였고, 또 앞으로도 길래 그럴 것같이 여겨진다는 것이다. 받은 사랑이며 가는 정으로야 어찌 어머니 위에 다시 있다 감히 장담할 수 있을까마는, 그럼에도 삼가 할아버지 한 분만으로 조상의 넋을 가늠하되, 당신 생전에 받은 가르침이야말로 진실로 받들고 싶도록 값지게 여겨지는 터임에, 거들 할아버지의 존재와 추억의 조각들을 모든 것의 으뜸으로 믿을 수밖에 없던 것이다. ( ㉣ )

— 이문구, ‘관촌수필’ 중에서 —

- ① ㉠
- ② ㉡
- ③ ㉢
- ④ ㉣